군승파송 50년, 군포교 활성화 박차

군종교구 11월 30일 기념법회 등 사업 진행

10월 28일 호국 원광사서 초대교구장 공덕비 제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가 역대 군승과 교구장 업적을 선양하는 한편, 군불교 역사 정리, 청년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불자 양성 나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0월 30일 군승파송 50주년을 기념해 인제 만해마을에서 사상 최초로 육해공 군종병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그동안 군종교구는 군종병들의 신심을 북돋기 위한 집체교육과 연수를 마련했지만, 직접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각군 군종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군종교구는 지난 8월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최초로 전국대학생과 군장병들의 교류의 장을 만든 바 있다. 군종교구와 대불련은 이를 통해 제대 후 청년불자로 자리잡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의 공덕비 제막식 모습.

역대 교구장 공덕비 건립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10월 28일 서울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의 공덕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면 스님은 초대교구장으로 교구기틀을 닦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병주 대장,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박정이 장군, 전 육군참모총장 임충빈 장군, 육군선임법사 이정우 법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일면 스님은 군종특별교구로서 위상을 다지고 조직과 교구업무 수행의 기틀을 다지셨다. 특히 군법당 관리와 행정의 기반을 닦고, 군승40년사 발간 등 군불교 역사 정리 및 비전제시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도 "스님의 발자취에 비하면 공덕비는 다소 부족함이 많다. 공덕비 제막을 계기로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고 축하했다.

일면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군포교와 한국불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군승가사 봉정 등 기념식

군승파송 50년을 기념해 호국 원광사와 서울 조계사를 잇는 행사도 마련된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30일 제50주년 군승의날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호국 원광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평화의비가 봉안되며,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초기 전시가사 및 군불교 50년사 봉정식, 사진으로 보는 군승 50년 전시전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군승법사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활발한 군포교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종교구 측은 "군승 파송 50년을 맞아 새로운 군불교, 군포교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라오스 위해 NGO단체와 '뭉쳤다'

9월 말 협약, 학생 대상 현지구호 착수

지난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이 NGO단체들과 현지 구호 공동대응을 위해 뭉쳤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과 공동주관으로, 라오스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NGO단체들과 '라오스 홍수피해 구호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9월 말 비공식적으로 체결, 총 30만불 규모의 구호활동에 착수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협력단체에는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등 불교계 NGO단체를 비롯, 아시아협력기구, 태화복지재단이 포함됐다.

재단 등은 △텐트 및 천막을 활용한 교육 공간 구축 △책걸상 및 학습물품 등 교육 기자재 구비 △정수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 △건강검진 및 기초보건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서 공동 구호를 전개할 계획이다.

구호활동은 지난 9월부터 세피안 · 통태 · 싸남사이 중학교 등 3개 학교서 전개됐다. 재단 등은 이 지역 약 2천여 학생들을 위해 약 60동의 텐트를 설치하고 임시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수행단체 관계자들은 10월 11일 현지를 방문, '라오스 홍수피해 공동대응 사업 기증식' 〈사진〉을 통해 지원물품 등을 전달했다.

10월 3주차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번 활동은 불필요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도"라며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각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미소서 느껴진 슬픔' … 문제해결 다짐

나눔의집, 10월 27일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하점연 할머니가 지난 10월 26일 별세한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관련 민간단체 등이 모여 피해할머니들을 기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10월 27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서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식 및 조소작품 공모전 시상식' 〈사진〉을 열었다. 이날 광주시, 광명시, 광명평화의소녀상참뜻계승관리위원회, 영화 〈귀향〉 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압구정성당봉사팀을 비롯해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나눔의집서 생활하던 故하점연 할머니의 타계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간결하고 차분하게 치러졌다. 이행균 작가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을 제작했다.

故배춘희 할머니(1923~2014)는 경북 성주 출생으로, 19세에 취업 사기로 중국 만주서 4년간 성노예 피해 생활을 했다. 1980년 귀국 후 매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 작가는 "모습은 배 할머니와 닮게 만들었지만 미소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담기가 힘들어 작업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각자 본분서 최선을 다 하면 일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조소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양형규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8작품은 한 시민이 기부한 100평 부지의 추모공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 〈귀향〉 촬영 세트장으로 조성된 영상기념관 개관식도 진행됐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귀향〉을 통해 370만 관객에게 '위안부' 이야기를 알리고 대부분 수익을 나눔의집에 기부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⑯

장점숙 부산보훈병원 봉사자

"함께 행복한 삶, 호스피스에 있어요"


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장점숙 봉사자. 환자들에게 연꽃등을 나누고 있다.

마음 나눔, 생사 초월 보람
죽음 두려움 없어져 행복
가족이 함께 동참 눈길

통도사 봉사단으로 사찰에서 활동하던 장점숙 봉사자가 호스피스 공부를 시작한건 2002년도였다. 이해 8월 장점숙 봉사자는 환희불교복지대학 9기로 졸업 후에 부산 보훈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욕봉사부터였다. 사찰에서 봉사를 했지만 환자들을 목욕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경험이 없는데 환자를 보러 갔으니 어려웠어요. 보훈병원은 대부분 고엽제 환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가족사도 안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2003년도 5월부터 부산 보훈병원에서 있으니 이제 15년이 넘었다.

장점숙 봉사자는 "대부분 남자분이시라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분들이 많다. 상담도 하고 가끔은 울고 싶을 때 울도록 해드리면 참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봉사자는 "돌아가신 뒤에도 이런 마음을 나눈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육신을 떠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보훈병원은 특성상 국가유공자이다보니 아무래도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또 오랫동안 아픈 분들이 많아서 환자들의 마음이 담담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배웠어요."

장점숙 봉사자는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한 마음 차이다. 자녀들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의 곁에는 그녀의 남편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장점숙 봉사자는 "우리 팀도 열심히 하지만 남편이 초파일 행사에서 등을 달고 하는데 심부름을 해주는 등 묵묵히 도와주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봉사하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점숙 봉사자는 "모든 호스피스봉사자들이 건강을 잘 챙겨 함께 불교호스피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는 "환희불교복지대학 또한 기수별로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자비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을 맛보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7대종단 평신도가 함께하는 캠페인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www.hspa.k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개신교 · 불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천주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가나다순)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
모두함께 우리답게

I 행사안내 I
행사일시
공식행사 : 2018. 11. 10.(토) 13:00 ※식전행사 12시
걷기대회 : 2018. 11. 10.(토) 14:00
행사장소
무대행사 :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걷기대회 : 올림픽공원 일대(3.2km)
프로그램
무대행사 : 평화 다짐 세레모니, 축하공연(박현빈 외)
부대행사 : 스포츠스타 초청 사인회, 경품행사
※경품 : LED TV, 청소기, 자전거 외 (걷기대회 참가자 대상)

I 신청안내 I
참 가 비 무 료
기 념 품
걷기대회 전 참가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제공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18.10.15.(월)~11.8.(목)
현 장 접 수 : 2018.11.10.(토) 11시 30분~13시
참가신청 공식홈페이지(www.답게살겠습니다.kr)
문 의 사무국 02-2272-3848

2018. 11. 10 토 13:00 |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